

**이오플로우, 대한당뇨병학회 주관 인슐린 펌프 워크숍 성료**

- ▶ 보건의료 전문인 참석 워크숍 - 참여업체는 지투이, 메드트로닉, 이오플로우
- ▶ 이오패치 실습 세션에 참석한 의료진에게는 제품 시연을 통해 올바른 사용법 알려

**[2023-02-27]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가 지난 26일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주관 인슐린 펌프 워크숍에 참여해 이오패치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인슐린 펌프 워크숍은 지난 26일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뇨병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펌프 관련 역학, 임상 이용 사례를 포함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슐린 펌프 참여업체는 지투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 세 곳이었다.

워크숍의 오전 강의 세션에서 홍준화 교수(대전 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이오패치 임상 사례를 소개하며 이오패치를 통한 인슐린 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여러 인슐린 펌프 기기의 장단점과 선택 시 고려사항 등을 알렸다.

이오플로우에서는 이번 워크숍 행사장에 이오패치 부스를 설치, 참석한 의료진들에게 이오패치를 알렸다. 이어 회사는 오후에 열린 인슐린 펌프 실습 세션을 직접 진행해 참여한 많은 의료진들에게 올바른 제품 사용법 등을 교육했고, 실제로 80여 명의 의료진이 제품을 직접 착용해 보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실습 세션에서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인슐린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당뇨관리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가 사용자 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입선이 없는 편리함, 스마트폰 앱 주입 기능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이어 회사 관계자는 금년 말 출시 예정인 이오패치 X는 진화된 하이브리드 인공췌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된 센서혈당을 기반으로 인슐린 주입량을 자동 조절하고 주입하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효과적인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향상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현재 이오패치 X는 지난해 말에 마지막 환자의 임상등록을 완료하여 임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출시하며 인슐린 투약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오패치는 주입선이 없는 패치형 인슐린 펌프라 활동이 자유롭고, 일 회 부착 시 최대 3.5일(84시간)간 지속적으로 인슐린 주입이 가능하다. 주 2회 정기 교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하고 모니터링할

※ 자료 문의: [ir.pr@eoflow.com](mailto: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판치는 현재 이오판치 온라인몰([www.eopatch.co.kr](http://www.eopatch.co.kr))에서 판매한다.

**[참고자료]**



**[▲사진 캡션]** 이오플로우 관계자가 실습 세션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캡션]** 이오플로우 관계자가 실습 세션에서 이오판치를 시연하고 있다.

※ 자료 문의: [ir.pr@eoflow.com](mailto: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